

C형 단면 폴리에스터 장섬유「CXP」

TORAY사는 스포츠 웨어용 신소재인 C형 단면 폴리에스터 장섬유「CXP」를 개발하였다. C형 단면으로 인해 벌키성과 경량성을 가지며, 중공률은 약 50 %이다. 다른 섬유와 조합하여 직·편물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며, 원단설계와 후가공을 조합하여 기능 복합화도 가능하다. 「CXP」는 2013년 5월 24일까지 TORAY 오사카 본사에서 열린 「14 S/W TORAY 스포츠 메세지전」에 소개되었다.

한편, 동 전시회에 방풍성과 통기성을 모두 갖춘 「ACT WIND VS」도 소개되었다. 기존의 방풍 니트인 「ACT WIND」는 코팅과 라미네이트 가공 방식이지만, 「ACT WIND VS」는 편성물 2장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방풍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통기성(3 cc/초·m² 이하)을 갖도록 하여 의복 내의 습기와 열에 의한 불쾌감을 감소시켰다. 경량성과 신축성이 우수하며 부드럽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소프트шел 재킷부터 스포츠용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.

기타 신소재로는 코어부분에 탄소계 무기입자가 들어간 태양광 축열 소재인 「SOLAR SENSOR β」도 선보였다. 특수 양면 파일조직에 의해 경량성과 벌키성이 우수하며, 스포츠, 아웃도어부터 캐주얼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.

♣ 섬유뉴스(2013. 5. 27)